

한전공대 설립·군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공약 19건 대거 포함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이행 위원회 설치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 집현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관련기사 3, 21면>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를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공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광주와 전남 공약 각각 8건,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선정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산업 거점화 추진(한전공대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

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 등에 대진해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대통령 4당 대표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 위해 앞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지역신문 발전은 지방분권 실현 원동력 한시법 묶여있는 지원특별법 상시화 필요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확하게 담아내는 개헌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여수 광주일보 사장과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인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박병석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유성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와 각당의 교문위 간사 등 국회의원 21명,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치수 경남대 교수가 지역신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이용성 한서대 교수

는 지역신문법과 지원방식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세연(바른정당) 국회의원, 이병철 부산일보 편집국장, 임철수 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이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 토론에 나섰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시법으로 묶여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고 일반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신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신협 회장사인 매일신문 여창환 발행인은 "앞만 보고 달려온 고도성장으로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됐다. 날로 쇠약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 여력을 선도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의 목소리를 내주는 지역언론은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이 있어야 지역발전도 담보될 수 있고 균형잡힌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고갈·소멸돼 가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의 복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수직적 분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바로 지역언론임을 공감했고, 국회의원들은 입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성열 교문위위원장은 "지방 분권의 촉진만이 나라의 효율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신문의 위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교문위부터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박성진기자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내년 대입 74% 수시로 뽑는다

내년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신입생의 74%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일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74.0%인 25만8920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집인원은 1만2029명(3.5%P) 늘었다.

입학전형 구분에 따른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60개 대학 12만 8589명(49.7%), 특별전형이 195개 대학 13만331명(50.3%)이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은 86.4%(22만3712명)로 2017학년도(85.8%)보다 0.6%P 늘었다.

전형 종류별로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54.1%(14만159명)로 전년(56.3%)보다 2.2%P 줄어든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32.3%(8만3553명)로 2.8%P 늘었다. /이종행기자 gotee@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전면 재조정

개폐회식 문화전당·금남로 개최 검토

오픈위터 경기 장성호→여수

2년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2019 광주대회) 경기장 설치 장소가 전면 재조정 될 전망이다. 대회 개폐회식도 광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금남로에 일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9 광주대회를 열기로 했던 6개 종목의 경기장 가운데 일부 대회 경기시설 설치 장소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초 경영과 다이빙은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 임시포를 만들어 경기를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하이다이빙과 수구는 각각 광주시청 광장과 진월국제테니스장에 임시포를 건설해 사용하고, 오픈위터 경기는 장성호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이 하이다이빙 임시 수조를 공공기관인 광주시청에 설치한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오픈위터 경기장으로 낙점됐

던 장성호는 TV중계를 위한 주변 인프라 부족과 대회 기간 중 수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조직위는 경기장의 전면 재조정을 고려 중이다. 광주대회 조직위는 현재 하이다이빙 경기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오픈위터 경기장은 여수 엑스포 인근 바다로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전당에 임시 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여수는 FINA가 대회 부분인 광주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조영택 광주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오픈 위터 경기가 열리는 발라톤 호수도 부다페스트에서 1시간 30분 거리였다. 여수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FINA 측을 설득할 계획이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하이다이빙 임시시설 설치가 어렵다. 금남로와 더불어 개폐회식 장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기리 부다페스트= 최원일기자 cki@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토퍼 및 전극 베타인, 아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렉스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